

중학생의 다문화접촉경험, 인지적 유연성, 편견 및 다문화적태도와의 관계*

최 기 현

한양대학교 / 대학원생

하 정 희†

한양대학교 / 교수

본 연구는 다문화적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가운데 다문화접촉경험, 인지적 유연성, 편견을 중심으로 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인지적 유연성과 다문화태도와의 관계에서 편견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 편견과 다문화적태도 간의 관계에서 다문화접촉경험이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A광역시의 3개 중학교 학생 455명(남학생 85명, 여학생 370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인지적 유연성의 하위변인인 통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하위변인들이 각각 서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둘째, 인지적 유연성의 대안 요인과 다문화적태도와의 관계에서 편견이 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셋째, 편견이 다문화적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문화접촉경험에 의해 조절되었다. 넷째, 인지적 유연성의 대안 요인이 편견을 매개로 하여 다문화적태도에 미치는 경로에서 다문화접촉경험은 편견과 다문화적태도 간의 관계를 조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상담 및 교육현장에 실제적인 의의 및 시사점, 그리고 제한점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인지적 유연성, 편견, 다문화접촉경험, 다문화적태도, 중학생, 조절된 매개

* 본 연구는 최기현(2019)의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청소년의 다문화접촉경험, 인지적 유연성, 편견 및 다문화적태도와의 관계’를 수정한 내용임.

† 교신저자 : 하정희, 한양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Tel : 02-2220-2613, E-mail : hajung366@hanyang.ac.kr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통계자료(2019)에 따르면, 2019년 2월에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는 전년 동월과 비교하여 대략 18만 명 정도 증가하였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는 약 231만 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4% 이상을 차지한다. 장한업(2014)은 OECD 국가를 기준으로 한 국가의 인구에서 체류 외국인의 비중이 5% 이상이면 다문화 사회라고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거의 다문화사회에 접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원래 거주민이 살고 있는 한 지역에 새로운 집단의 구성원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은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양계민, 2009).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동안 단일 민족주의 같은 집단주의적 사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문화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김경근, 이기혜, 2016). 동양의 문화는 서양에 비해 집단주의적 경향이 커서 이미 형성된 집단의 안정이 개인의 심리적 안녕보다 중요하게 여겨진다(유성경, 유정미, 2000). 예를 들어, 집단 간 편견, 갈등으로 인한 사회의 분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예멘 난민신청자 급증과 관련된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에 심각한 인종차별이 존재한다는 내용의 독립보고서를 작년 11월에 발표한 바 있으며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또한 한국 정부에 인종차별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인종차별 증오 표현에 대한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세계일보, 2018년 12월 14일자). 즉, 한국은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지만, 다문화에 대한 태도는 답보중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다양한 외국인들과의 충분한 접촉과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특정 외국인 집단을

향한 부정적인 태도 및 차별적 행동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환경에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탐색하고 다문화에 대한 성숙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일은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

기본적으로 다문화적태도(Multicultural attitude)는 다문화사회로 접어드는 과정에서 다문화 현상이나 외집단에 대해 원래 거주민이 보이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김경근, 이기혜, 2016). 이 과정은 시대, 국가마다 다르게 겪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회문화적 연구를 통해 다양하게 다문화적태도에 대하여 정의되어왔다. 다문화적태도와 관련하여 전개된 초기의 논의들은 대체로 다문화 현상에 대한 원래 거주민의 태도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소수집단으로서 이주민이 그들 고유의 생활양식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지지를 말하기도 하고(Kymlicka, 1995), 이주민이 원래 거주민의 문화에 단순하게 동화되지 않고 교류를 통해 새로운 공통의 문화를 형성하는 것에 대한 지지로 정의되기도 하였다(Hollonger, 1995). 이러한 맥락에서 다문화적태도는 기본적으로 기존 거주민의 관용을 전제로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반면 연구가 거듭되어 올수록 다문화적태도는 이주민에 대한 관용과 그들에 대한 존중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Breugelmans & Van De Vijver, 2004).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원래 거주민이 개인적으로 이주민에 대하여 자신과 동등한 권리를 지닌 사회구성원으로 인식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지지하는 성향 혹은 다문화 정책을 수용하는 정도 등을 통해 다문화적태도가 정의되기도 했다(Masso, 2009; Verberk, Scheepers, &

Felling, 2002; Ward & Masgoret, 2008).

한편 Munroe와 Pearson(2006)은 다문화적태도를 3요소 모델로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구성원으로서 한 개인이 타문화에 대해 갖고 있는 감정, 신념, 그리고 행동의 경향성으로 보고, 인종과 문화 다원성을 인정하고 타인과 타문화를 수용하려는 태도로 정의하였다. 또한 Vassallo(2012)는 태도를 무엇에 대하는 개인의 호감과 혐오감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 다문화적태도를 자신과 다른 문화배경을 가진 사람, 장소, 물건, 사건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관점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그 외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다문화에 대한 태도는 일관성 있게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다문화를 평가하는 청소년들의 반응이라고 보고 단일차원으로 구성하였으며, Goldsmith(2013)는 청소년의 다문화적태도는 다문화적 경험을 통해 자신의 많은 욕구를 만족시키고자 할 때 형성되므로 유연한 다문화적 행위 실천에 대한 설명과 예측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보았다. 이러한 다문화적태도는 인종적 편견이나 차별을 없애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과 이질적 문화 특성의 이해, 그리고 인종적 문제에 대응하는 능동적 수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변인으로 밝혀져 있다(Banks, 1991; Bennett, 2007). 이상의 선행연구의 개념을 종합하여 이 연구의 다문화 태도는 문화 배경이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대해 호의적, 비호의적으로 반응하는 정신적, 신경적 경향성과 평가적 판단으로 정의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는 다문화적 태도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요인으로서 인지적 유연성을 제시하였다. 유연성(flexibility)이라는 것은 익숙하

지 않은 낯선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Gough, 1987), 이 가운데 습득한 지식을 어렵고 다양한 상황에서 적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인지적 유연성(cognitive flexibility)이라고 한다. 유힝찬(2015)은 심리학분야에서의 인지적 유연성에 대한 학자들의 개념을 크게 두 가지로 범주화하여 구분하였다. 그에 의하면 첫 번째로, 인지적 유연성을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상황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는 인지적 능력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인지적 능력에는 새로운 상황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생각을 통해 대응하는 것도 포함된다. 두 번째는 태도에 관한 것으로써, 상황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적응하고자 하는 자발성과 이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나타내며, 새롭고 변화되는 상황에 대한 선호적이며 이를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태도를 일컫는다. Dennis와 Vander Wal(2010)은 인지적 유연성을 변화를 대하는 태도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지적 능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고 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안을 도출하는 능력, 그리고 상황을 통제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경향성으로 이를 설명하였다. 이 개념을 토대로 허심양(2011)은 인지적 유연성이란 어려운 상황에서 해결책을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고 생활사건 및 사람의 행동에 대하여 다양한 대안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 어려운 상황을 직접 통제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성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인지적 유연성은 상황을 다양하게 바라보는 대안적인 영역과 그 상황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통제적인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지적 유연성은 대인관계능력의 향상과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데(김완일, 2008; 이현예, 조현주, 2016), 그 중에서도 새로운 환경에서 벌어진 상황에

따라 문제를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능력은 타인에 대한 태도 및 상호작용에 중요한 부분이다(임정하, 조은영, 오연경, 윤원영, 2016).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인지적 유연성의 대안은 감정표현, 냉담함 같은 성격 특성들과 상관을 보인 반면, 통제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이재규, 황순택, 신소영, 2014). 이렇듯 인지적 유연성은 새롭고 다양한 상황에 따라 기존의 생각과 행동을 수정할 수 있고, 일상에서 일어나는 생활 사건과 인간의 행동에 대하여 다양한 대안적 사고를 하도록 해준다. 따라서 인지적 유연성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관적 안녕감과 직무 수행 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해 가지는 태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인지적으로 유연한 사람이 경직된 고정관념적 생각이 아니라 다양한 대안과 관점을 가지고 외집단에 대한 인상 형성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지적 유연성의 대안적인 부분이 개발되거나 향상 된다면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집단 구성원을 평가하는 경향이 감소할 것이고 그 결과, 부정적인 태도 또한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유연성의 대안적인 부분과 다문화적태도와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유연성과 다문화적태도의 관계에서 그 과정 변인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이 과정 변인으로 ‘편견’을 상정하였다. 편견(prejudice)이란 어떤 특정 집단이나 집단 구성원에 대한 정당화 시킬 수 없는 부정적 태도이다(Myers & Jeeves, 1987). 고정관념이나 편견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형성되고 강화되는 과정은 개인적 혹은 심리적 과정과 환

경적인 과정으로 나누어진다. 개인적 측면에서 볼 때 고정관념은 일종의 도식이다. 즉, 개인의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유사한 상황을 접하면서 지속적으로 강화된다(Sensoy & DiAngelo, 2012).

인지적 유연성과 편견의 관계는 자기범주화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자기범주화이론(self categorization theory)에 따르면 인간의 기본적인 지각적 속성 자체가 세상의 사물을 범주화하는 경향이 있어서 자기와 유사한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내집단(in-group)으로 범주화하고 자기와 다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을 외집단(out-group)으로 범주화한다. 이러한 범주화는 정보처리를 용이하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 하여 왜곡된 지각을 할 수 있다는 문제를 지닌다. 즉, 같은 범주에 속한 자극들 사이에서의 차이는 실제보다 줄여서 해석하고 다른 범주에 속한 자극들 사이의 차이는 실제보다 확대해서 해석하는 강조효과(accentuation effect)가 나타나게 된다. 그 결과, 자기를 중심으로 구분된 내집단과 외집단 사이의 차이를 더욱 크게 과장할 가능성이 있다. 자기범주화이론은 재범주화 현상을 설명한다(한덕웅, 2002). 자기범주화 이론의 핵심은 자기 스스로가 개인적 존재나 사회적 존재로 범주화하는 인지과정을 결정한다는 점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개인정체성과 사회정체성은 개인 스스로가 특정 범주를 유사성, 동등성을 바탕으로 인지하고 판단하면서 만들어간다. 개인정체성이 개인이 지니는 여러 가지 속성 중에서 비슷한 속성들로 범주를 묶거나 타인과 구별되는 차이점들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자기범주화 함으로써 이루어진다면, 사회정체성은 집단 간 관계를 통하여 사람들 간 사회적 유사성과 차이점에 근거하

여 개인을 사회범주화 하면서 이루어진다. 개인은 사회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심리적으로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경계선을 그어 자신의 집단을 범주화하여 정체성을 형성한다. 이러한 개인의 집단 경계선은 심리적인 변화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 개인이 인식한 차이에 근거하여 특정 범주를 나누고 활성화 되면서 형성된 편견은 언제든지 변화가 가능하다 (Turner, Hogg, Oakes, Reicher & Wetherell, 1987). 이는 앞서 소개한 인지적 유연성의 대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지적으로 다양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범주화를 더 잘하고 편견적 태도를 덜 갖게 된다. 김혜숙(2001)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편견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한 점을 고려한다면, 그 중 한가지로 제시할 수 있는 인지적 유연성의 대안이 편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은 본 연구의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이다.

한편, 타인종이나 외집단에 대한 편견은 다문화적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김영태, 2011). 편견은 여러 가지 중요한 가치가 상충할 때 느끼는 불편감이나 불안감으로 인해 형성되고 이는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Katz & Hass, 1988). 미국 백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주의적 가치 및 평등주의적 가치가 상충되는 데에서 불편감이나 불안감을 느끼고 이것이 편견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은 양가감정적 태도 또는 혐오적 인종주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양계민, 2009).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유선미(2016)는 타인이나 주변의 영향으로 인종, 민족 등의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선입견이나 부정적 편견을 형성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다문화적태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 따르면, 성인보다 청소년의 편견과 다문화적태도가 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김혜숙, 김도영, 신희천, 이주연, 2011), 청소년의 편견이 다문화 개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박혜선, 2015). 또한, 어홍선과 이종숙(2018)의 연구에서는 편견이 다문화효능감에 부적 영향을 나타내었고 초등학생의 편견은 다문화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부적 관계를 보여주었다(김영태, 2011), 이는 대학생과 비교하여 더 높은 수준의 편견을 나타낸 결과로서(노경란, 방희정, 2009), 청소년들의 편견은 다문화적태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유연성과 편견, 다문화적태도 간의 관계 사이를 조절하는 변인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다문화접촉경험으로 가정하였다. Berscheid와 Reis(1998)는 타인이나 외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 하나로 근접성효과를 제안했다. 근접성은 물리적 거리보다는 심리적 거리를 의미하며 더 많이 보고 더 자주 상호작용 할수록 상대에 대한 호감도가 증가한다. 이러한 접촉은 서로가 비슷하다는 유사성을 경험하면서 상대에 대해 친밀감과 친숙성을 야기한다(Byrne, 1997). 이에 따라 다문화에 대한 접촉경험이 많을수록 성숙하고 수용적인 다문화적태도를 보인다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Pettigrew & Tropp, 2008; Tropp & Pettigrew, 2005; Wagner, Christ, Pettigrew, Stellmacher & Wolf, 2006). 대표적으로 Tadmor, Galinsky와 Maddux(2012)에 따르면, 다문화적 접촉경험은 소수 집단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줄여주고 인종차별적 태도를 감소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접촉 수준에 따라 인지적 측면의 편견도 감소되었

으며(Tropp & Pettigrew, 2005; Wilder, 1986), 접촉경험이 차별적 행동을 감소시킨다는 연구도 발견할 수 있다(Wright & Lubensky, 2009). 안상수, 민무숙, 김이선, 이명진, 김금미(2012)는 대중매체를 통한 직·간접 접촉경험을 통해 다문화적태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민무숙 등(2010)의 연구에서도 다문화에 대한 직·간접 접촉경험을 통해 다문화적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단순히 목격 경험이 있는 것만으로도 목격 경험이 없는 그룹보다 성숙한 다문화적태도를 보였으며(이지영, 2013), 접촉경험이 없다고 하여도 다른 집단 구성원과의 긍정적인 접촉을 상상해보는 것만으로 고정관념 및 편견, 태도 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이봉민, 2012). 특히, 다문화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접한 중학생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줄고, 다문화에 대한 태도도 긍정적으로 나타났다(김수진, 이정숙, 김보영, 최봉실, 권영란, 2010). 관련하여, 공식적인 교육과 일상 및 학교 생활에서 얻는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다문화적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김수영, 2016),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다문화에 대한 호감도 높일 수 있었다(하경애, 2010).

한편, Allport(1954)는 접촉이 항상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접촉이 일어나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결과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접촉이 외집단에 대한 위협감을 완화시키고 편견을 낮추기 위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요소가 있어야한다고 하였다. 첫째, 동등한 지위에서 접촉이 발생해야 한다. 둘째, 동일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셋째, 집단

간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법이나 제도적인 차원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McLaren, 2003). 이후의 연구에서 단순히 높은 접촉 빈도보다 접촉의 질이 긍정적인 결과에 더 중요하다는 점과 친밀한 관계로 접촉하는 경험이 상대에 대한 편견을 낮추는 데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밝혀졌다(Ellison, Steinfeld & Lampe, 2011; Tropp, 2007). 즉, 외국인의 인구가 단순히 증가하는 것만으로 접촉의 기회가 늘어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을 뿐더러 오히려 막연한 불안감과 위협감이 증가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양질의 접촉 기회를 제시할 것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Matejskova & Leitner, 2011; McLaren, 2003).

위와 같은 이론적 근거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유연성, 편견, 다문화접촉 경험과 다문화적태도의 관계에 관하여 그림 1과 같은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중학생으로 선정하였다. 청소년기는 발달 측면에서 사회와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성장하는 시기이다. 특히, 교육적으로 초기청소년부터 다문화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청소년이 다문화 집단에 가지는 편견이나 부정적 태도는 훗날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확률이 높다(이택호, 이석영, 한윤선, 2016).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인지적 유연성, 편견, 다문화적 태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인지적 유연성과 다문화적태도와의 관계에서 편견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확인할 것이다. 또한, 편견과 다문화적 태도의 관계에서 다문화접촉경험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 인지적 유연성, 편견, 다문화적 태도의 관계에서 편견이 다문화접촉 경험에 의해 조절된 매개역할을 하는지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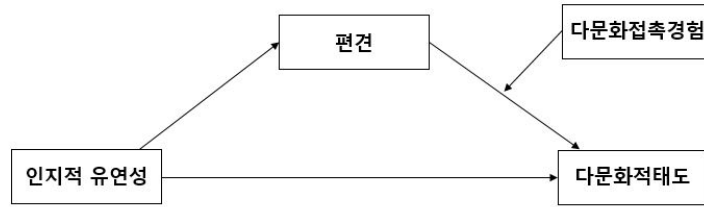


그림 1. 인지적 유연성, 편견, 다문화접촉경험 및 다문화적태도와의 관계 연구모형

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A광역시에 위치한 세 개의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이루어졌다. 학교장의 승인이 이루어진 중학교 세 곳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위해 동의서를 발송하였고, 이후 보호자 동의를 확인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자가 직접 각 학교를 방문하여 설문지 내용과 작성요령을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에 한하여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 응답시간은 개인마다 편차가 있었으나, 보통 15분 내외가 소요되었으며, 최대 30분을 넘지 않았다. 설문지에는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정보로 최소한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성별, 학년, 만 나이 등을 포함하여 연구 참여자 정보를 획득하였으며, 전체 52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이 중에 설문지의 일부를 응답하지 않았거나, 일괄적으로 같은 번호에 표시한 것과 같은 무성의하게 응답한 설문지 65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455명의 설문을 연구에 사용하였다. 연

구에 포함된 응답자의 성별은 남학생 85명(18.7%), 여학생 370명(81.3%)으로 구성되었으며 학년은 1학년 117명(25.7%), 2학년 178명(39.1%), 3학년 160명(35.2%)이었다.

측정 도구

인지적 유연성

인지적 유연성을 측정하기 위해 Dennis & Vander Wal(2010)이 개발한 인지적 유연성 검사(Cognitive Flexibility Inventory:CFI)를 허심양(2011)이 번안·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19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대안과 통제의 하위변인으로 나뉜다. 여기에서 ‘대안’요인은 어려운 상황에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일상생활 및 사람의 행동에 대하여 다양한 대안적 설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를 측정하는 문항의 예시로는 ‘나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양한 선택을 고려한다.’, ‘어려운 상황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는 것은 중요하다.’ 등이 있다. 한편, ‘통제’ 요인은 어려운 상황에 직접 대처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성을 말한다. 이를 나타내는 문항의 예시로는 ‘나는 삶에서 내가 직면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나는 멈춰서서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생각하려고 애쓴다.’ 등이 있다. 7점 Likert형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적 유연성이 높은 것으로 측정된다. 선행 연구에서의 *Cronbach's a*는 .86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는 .81로 조사되었다.

편견

인지적 편견을 측정하기 위하여 Corrigan과 Schumidt(1983)가 개발한 상담자 평가척도, 감정적 편견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하령(2007)이 사용한 편견 척도, 행동적 편견을 측정하기 위하여 Westie(1953)의 사회적 거리감 척도를 박여경(2018)이 합하여 수정·활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인지적 편견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고정관념을 나타낸다. 이를 측정하는 문항의 예시는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게으르다고 생각한다.’ 등이 있다. 감정적 편견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시로는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보면 불편하다.’ 등이 있다. 행동적 편견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큰 것을 의미하며, 이를 측정하는 문항의 예시로는 ‘나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다문화가정 학생들과 가벼운 인사 정도만 나누는 사이로 지내고자 한다.’ 등이 있다. 총 35문항이고 5점 Likert형 척도에 평정하도록 설계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편견이 심한 것을 의미한다. 박여경(2018)의 연구에서 *Cronbach's a*는 .93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도 *Cronbach's a*는 .93이었다.

다문화접촉경험

다문화접촉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Ward(1996)가 개발하고 이해진(2009)이 보완, 수정한 다문화 접촉경험 체크리스트(Cross-Cultural life Experience Checklist(CCLEC))를 사용하였다. 총 37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하위변인은 가족, 친구, 사회, 학교 및 학원, 종교, 미디어, 외국어, 여행 등의 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측정하는 문항의 예시로는 ‘친한 친구 중 다른 피부색이나 문화를 가진 친구가 있다.’, ‘다른 피부색이나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하루 이상 함께 지내본 적이 있다.’, ‘나의 종교가 아닌 다른 종교 예배에 참석해 본 적이 있다.’ 등이 있다. 예는 1점, 아니오는 0점으로 처리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경험이 풍부한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의 *Cronbach's a*는 .73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는 .81이었다.

다문화적태도

다문화적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선곡유화(2016)가 개발하고 타당화 한 다문화태도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6점 likert형 척도이다.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뜻하는 다문화 개방성,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 대한 차이나 다양성을 존중하며 동등하게 받아들이는 다문화 수용성,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을 자신의 문화와 동등하게 여기고 공감하며, 조화를 추구하는 것에 대한 선호도를 뜻하는 다문화 공존성 등 세 개의 하위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변인들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문항 예시로는 ‘나는 한국어 이외의 다른 언어 사용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있다.’, ‘나는 다른 나라 사람과 만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종교에 따른 문화적 차

이를 존중한다.’ 등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적태도가 성숙함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의 Cronbach's α 는 .95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4로 나타났다.

Hayes(2013)가 제안한 Process Macro를 이용하여 인지적 유연성이 편견을 매개로 다문화적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문화접촉경험의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였다.

자료분석

SPSS 21.0, Process Macro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기술 통계치를 확인한 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인지적 유연성의 대안이 편견을 통해 다문화적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Baron과 Kenny(1986)에 의해 제시된 매개효과 분석절차에 따라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편견이 다문화적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문화접촉경험이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였다(Aiken, West & Reno 1991). 이 과정에서 다중공선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평균중심화 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결 과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인지적 유연성, 편견, 다문화접촉경험, 다문화적태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으며, 인지적 유연성의 하위변인인 통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변인에서 상관관계가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앞서 인지적 유연성의 대안과 통제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밝힌 바 있다. 또한 인지적 유연성의 대안적인 부분이 편견 및 태도와 상관이 있다고 한 임정하 등(2016)의 연구

표 1. 각 변인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1.	2.	3.	4.	5.
1. 다문화접촉경험	1				
2. 인지적 유연성_대안	.18**	1			
3. 인지적 유연성_통제	-.03	-.04	1		
4. 편견	-.25**	-.32**	.10*	1	
5. 다문화적태도	.36**	.42**	-.07	-.67**	1
평균	0.44	5.46	4.02	2.13	4.87
표준편차	.14	.89	.86	.46	.81
왜도	.20	-.14	.38	.05	-.60
첨도	.17	-.51	-.04	-.07	.50

** $p < .01$, * $p < .05$

와 같다. 통계적으로도 매개분석은 상관관계가 필수적으로 유의미해야함을 감안할 때, 이후의 분석에서는 인지적 유연성 중 통제를 제외하고 대안 변인만을 사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분석된 변인들 중 가장 큰 왜도의 절대값은 .60, 가장 큰 첨도의 절대값은 .51으로 정규성이 가정되었다.

한편, 모든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문화접촉경험은 인지적 유연성과 $.16(p < .01)$, 다문화적태도와 $.36(p < .01)$ 으로 정적상관을 나타내고 편견과 $-.26(p < .01)$ 으로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편견은 다문화적태도와 $-.67(p < .01)$ 로 큰 부적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유연성의 경우에는 대안과 통제의 두 하위변인을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지적 유연성의 대안 변인은 다문화접촉경험과 $.18(p < .01)$, 편견과 $-.32(p < .01)$, 다문화적태도와 $.42(p < .01)$ 의 상관관계 값을 가지며 정적상관이 있음을 보여준다. 인지적 유연성의 대안은 편견의 하위변인인 인지적 편견, 감정적 편견, 행동적 편견 모두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음을 나타내었고 다문화적태도의 모든 하위변인(다문화개방성, 다문화수용성, 다문화공존성)과는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다문화접촉경험의 하위변인 중에는 친구($.15, p < .01$), 미디어($.13, p < .01$), 외국어($.16, p < .01$), 여행($.20, p < .01$) 등의 4개의 변인들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가족($.03$), 사회($.08$), 학교·학원($.03$), 종교($-.03$) 등의 4개 변인들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한편, 인지적 유연성의 통제는 다문화접촉경험과의

상관계수가 $-.03$ 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못하다. 또한,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다문화적태도와도 상관이 $-.07$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매개효과 검증

인지적 유연성의 대안이 편견을 통해 다문화적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확인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에 의해 제시된 매개효과의 분석 절차에 따라 3단계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3단계에서 인지적 유연성의 대안이 다문화적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2단계에 비교하여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다($\beta = .23, t = 6.48, p < .001$). 이를 통하여 인지적 유연성의 대안이 다문화적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편견이 부분매개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확인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확인하고자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고 매개효과의 하한값은 $-.68$ 이고 상한값은 $-.51$ 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95% 신뢰구간의 범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음이 확인되기 때문에 편견의 매개효과가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인지적 유연성의 대안이 편견을 부분매개로 다문화적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조절효과 검증

편견이 다문화적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문화접촉경험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 다문화접촉경험, 인지적 유연성(대안, 통제), 편견, 다문화적태도 및 각 하위변인 간의 상관관계

	1	1-1	1-2	1-3	1-4	1-5	1-6	1-7	1-8	2-1	2-2	3	3-1	3-2	3-3	4	4-1	4-2	4-3	
1. 다문화접촉경험	1																			
1-1 가족	.53**	1																		
1-2 친구	.73**	.56**	1																	
1-3 사회	.59**	.29**	.42**	1																
1-4 학교·학원	.64**	.25**	.39**	.30**	1															
1-5 종교	.37**	.14**	.19**	.15**	.17**	1														
1-6 미디어	.58**	.10*	.20**	.21**	.22**	.14**	1													
1-7 외국어	.56**	.21**	.26**	.27**	.26**	.11*	.23**	1												
1-8 여행	.44**	.10*	.16**	.25**	.15**	.00	.13**	.26**	1											
2-1 대안	.18**	.03	.15**	.08	.03	-.03	.13**	.16**	.20**	1										
2-2 통제	-.03	.06	-.00	-.01	-.06	-.03	-.02	-.01	-.05	-.04	1									
3. 편견	-.25**	-.05	-.22**	-.11*	-.16**	-.04	-.24**	-.07	-.10*	-.32**	.10*	1								
3-1 인지적 편견	-.08	.06	-.04	.01	-.05	.02	-.14**	-.04	-.05	-.27**	.06	.80**	1							
3-2 감정적 편견	-.15**	-.01	-.14**	-.07	-.09	-.06	-.18**	-.01	.01	-.18**	.12*	.86**	.61**	1						
3-3 행동적 편견	-.38**	-.15**	-.33**	-.19**	-.24**	-.05	-.29**	-.11*	-.19**	-.33**	.09	.83**	.46**	.56**	1					
4. 다문화적태도	.36**	.05	.25**	.15**	.22**	.09	.32**	.23**	.17**	.42**	-.07	-.67**	-.47**	-.50**	-.67**	1				
4-1 개방성	.36**	.08	.27**	.17**	.21**	.07	.30**	.24**	.17**	.43**	-.10*	-.62**	-.45**	-.47**	-.63**	.95**	1			
4-2 수용성	.35**	.02	.22**	.12*	.22**	.10*	.30**	.24**	.19**	.37**	-.02	-.60**	-.42**	-.44**	-.61**	.91**	.79**	1		
4-3 공존성	.31**	.05	.22**	.13**	.18**	.08	.29**	.18**	.13**	.36**	-.08	-.65**	-.46**	-.50**	-.63**	.94**	.86**	.79**	1	

** $p < .01$, * $p < .05$

표 3. 인지적 유연성이 다문화적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편견의 매개효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비표준화계수		β	t	R^2	F
			b	SE				
1단계	대안	편견	-.32	.05	-.32	-7.05***	.099	49.74***
2단계	대안	다문화적태도	.42	.04	.42	9.74***	.173	94.78***
3단계	대안	다문화적태도	.23	.04	.23	6.48***	.491	217.81***
	편견	다문화적태도	-.60	.04	-.59	-16.79***		

*** $p < .001$

표 4. 편견의 매개효과에 대한 부트스트래핑 결과

경로	간접효과		95% 신뢰구간	
	$Effect$	SE	하한	상한
인지적 유연성(대안) → 편견 → 다문화적태도	-.60	.04	-.68	-.51

bootstrap 표본의 수 = 5,000

(Aiken et al, 1991).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편견과 다문화적태도를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하고, 상호작용항을 생성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각 단계에서 R^2 의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전체 설명량은 48.9% 이었으며 이는 전 단계와 비교했을 때, 0.6% 만큼 설명력이 증가한 것이다($R^2 = .489$, $\Delta R^2 = .006$, $\Delta F^2 = 5.33$, $p < .05$). 즉, 편견이 다문화적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문화적접촉경험의 수준에 따라서 조절된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적태도에 미치는 편견의 영향이 다문화적접촉경험의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조절변인인 다문화적접촉경험을 +1표준편차, 평균, -1표준편차로 구분한 후, 각 수준에서 편견이 다문화적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순회귀선을 그래프

로 나타냈으며 그 결과는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각 회귀선 별로 단순기울기 검증을 실시한 결과, 조절변인인 다문화적접촉경험의 수준이 낮은 경우(-1표준편차), 편견이 다문화적태도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가 $B = -1.19$ ($t = -14.54$, $p < .01$)로 나타나 통계적인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또한, 다문화적접촉경험이 보통(평균) 수준에서도 편견의 영향이 $B = -1.06$ ($t = -16.74$, $p < .01$)로 통계적인 유의성이 확인 되었으며, 다문화적접촉경험이 높은 경우(+1표준편차)도 편견이 다문화적태도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가 $B = -0.92$ ($t = -10.45$, $p < .01$)로 나타나 모든 경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검증하였다. 그 래프를 통하여 편견의 수준이 높더라도 다문화적접촉경험이 늘어날수록 다문화적태도가 높아지는 패턴을 보였고, 이는 다문화적태도가 성숙해진다고 할 수 있다.

표 5. 편견과 다문화적태도 간의 관계에서 다문화접촉경험의 조절효과

준거변인	예측변인	비표준화계수		β	t	R^2	ΔR^2	F
		b	SE					
다문화적 태도	편견	-.67	.035	-.67	-19.00***	.443		360.92***
	편견	-.62	.035	-.61	-17.55***	.483	.039	210.99***
	다문화 접촉경험	.21	.035	.21	5.87***			
	편견	-.61	.035	-.61	-17.45***			
	다문화 접촉경험	.21	.035	.21	5.97***	.489	.006	143.79***
	편견 × 다문화 접촉경험	.01	.003	.08	2.31*			
	다문화 접촉경험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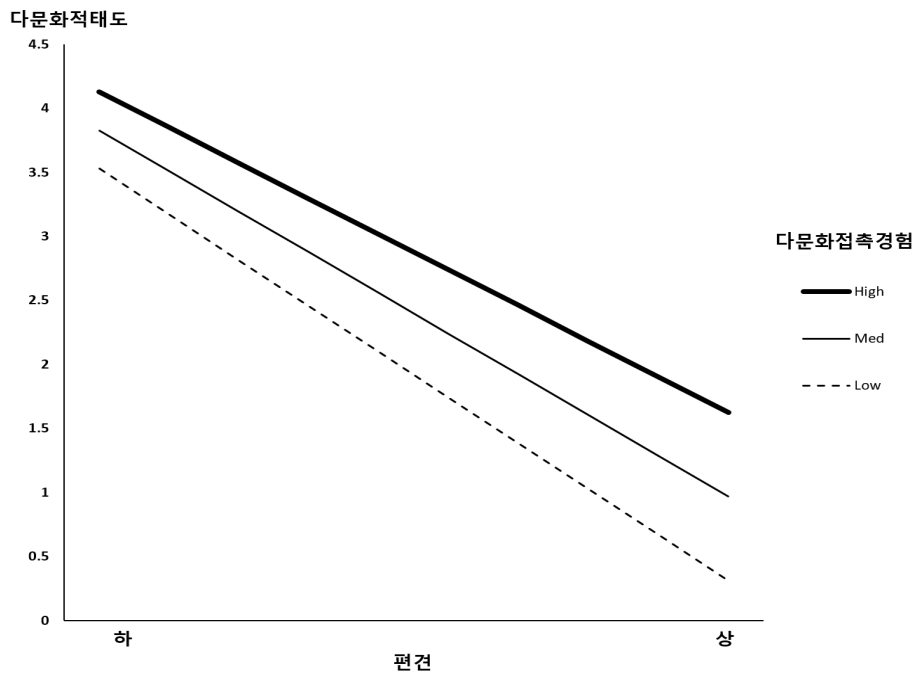


그림 2. 청소년의 다문화접촉경험 정도에 따른 편견과 다문화적태도 간의 관계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조절된 매개효과(Moderated Mediation)는 매개 변인을 통한 간접효과가 조절변수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정선호, 서동기, 2016; James & Brett, 1984). 즉,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할 때에는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상호작용효과가 없음을 가정하고,

매개변인을 통한 경로에서 발생하는 독립변인의 간접효과의 크기나 방향이 조절변인의 수준에 따라 변하게 된다(정선호, 서동기, 2016). 회귀분석을 통하여 독립변인인 인지적 유연성의 대안이 종속변인인 다문화적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지적 유연성의 대안과 조절변인인 다문화적접촉경험의 상호작용효과를 확인하였다. 인지적 유연성의 대안이 다문화적태도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에서 대안과 다문화적접촉경험의 상호작용효과를 확인한 결과, $\beta = -.02$ ($t = -.55, p = n.s$)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인지적 유연성의 대안이 편견을 매개로 하여 다문화적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문화적

접촉경험의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독립변인인 인지적 유연성의 대안이 매개변인인 편견에 미치는 영향($b = -.31, p < .001$)과 편견이 다문화적태도에 미치는 영향이($b = -.89, p < .001$) 나타나 매개를 통한 간접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다문화적태도에 대한 편견과 다문화적접촉경험의 상호작용효과도 $b = .01, p < .05$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편견을 통한 매개효과가 다문화적접촉경험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뜻한다.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정을 위해 부트스트래핑 분석을 실시하여 조건적 간접효과

표 6. 조절된 매개효과

변인	종속변수 : 편견		
	<i>b</i>	<i>SE</i>	<i>t</i>
대안	-.31	.045	-7.05***
변인	종속변수 : 다문화적태도		
	<i>b</i>	<i>SE</i>	<i>t</i>
대안	.21	.035	6.01***
편견	-.89	.161	-5.54***
다문화적접촉경험	-.16	.161	-0.97
편견 × 다문화적접촉경험	.01	.003	2.15*

* $p < .05$, ** $p < .01$, *** $p < .001$

표 7.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결과

매개	다문화적접촉경험	간접효과		95% 신뢰구간	
		<i>b</i>	<i>SE</i>	<i>boot LLCI</i>	<i>boot ULCI</i>
편견	<i>M-1SD</i>	-.62	.05	-.71	-.53
	<i>Mean</i>	-.55	.04	-.62	-.49
	<i>M+1SD</i>	-.48	.05	-.58	-.38

를 확인하였다. 다문화접촉경험의 수준을 +1 표준편차, 평균, -1표준편차로 구분하여 각각의 수준에 대하여 95%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다문화접촉경험이 높은 경우(+1표준편차), 평균인 경우, 낮은 경우(-1표준편차) 모두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므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이를 통하여 인지적 유연성의 대안이 편견을 통하여 다문화적태도에 미치는 매개의 간접효과를 다문화접촉경험이 조절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적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인지적 유연성을 독립변인, 편견을 매개변인, 다문화접촉경험을 조절변인, 다문화적태도를 종속변인으로 한 조절된 매개모형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적 유연성의 두 하위변인인 대안과 통제에 따라 편견, 다문화접촉경험, 다문화적태도 간의 상관관계가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인지적 유연성의 대안은 편견, 다문화접촉경험, 다문화적태도 모두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음을 나타냈으며 인지적 유연성의 통제는 편견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으나 다문화접촉경험, 다문화적태도와의 상관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문제가 갈등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고 생각하는 능력이 해당

상황을 직접 경험하는 것과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뜻하고, 문제가 갈등상황을 직접 통제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은 경험이나 태도와는 관련이 없음을 뜻한다. 인지적 유연성의 대안이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 다양하게 접근하고 해석하여 대안적 사고를 하는 능력임을 감안할 때, 문제를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능력이 타인에 대한 태도 및 상호작용에 중요하다고 한 선행연구와 일치한다(임정하 등, 2016). 또한 인지적 유연성의 대안이 성격특성과 상관이 있었던 반면, 통제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던 이재규 등(2014)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이는 전체 인지적 유연성이 외집단에 대한 태도와 관련있다는 김영주(2015)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김영주의 연구에서는 인지적 유연성을 대안과 통제로 나누지 않고 단일변인으로 정의하고 해석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둘째, 인지적 유연성의 하위요인 중 대안이 편견을 매개로 하여 다문화적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낮은 수준의 인지적 유연성의 대안요인은 편견을 높이는데 기여하며 이와 같은 높은 편견은 성숙하지 못한 다문화적태도를 예측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기범주화이론(self categorization theory)을 만족하는 것이다. 즉, 높은 수준의 대안능력은 이미 범주화되어 있는 내집단과 외집단의 경계에 대한 왜곡을 줄여준다. 왜곡이 줄어든다는 것은 재범주화를 통하여 그동안 외집단이라고 여겼던 타인에 대해 자신과 동질성을 가진 내집단으로 인식하여 편견을 줄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청소년의 인지적인 유연함이 상황에 대한 재범주화를 잘하고 이를 통하여

편견이 줄고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김혜숙 등, 2011; 한덕웅, 2002).

셋째, 편견이 다문화적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문화접촉경험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다문화접촉경험을 많이 한 집단, 평균적으로 한 집단, 적게 한 집단을 나누어서 비교했을 때, 편견이 높은 청소년들은 다문화접촉경험을 많이 할수록 다문화적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수준의 다문화접촉경험을 한 청소년의 경우 편견이 높을 때의 다문화적태도가 편견이 낮을 때의 다문화적태도보다 덜 성숙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접촉 효과가 이전에 자신이 접촉한 경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접촉이 항상 긍정적인 것이라고 가정할 수 없다는 주장들(Paolini, Harwood, & Rubin, 2010; Plant & Devine, 2003)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하여 다문화접촉경험이 어떻게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한 것이다. 또한, 이는 지속적인 접촉이 태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근접성효과를 지지한다. 또한 접촉이 편견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Eller와 Abrams(2003)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라중민과 정혜진(2013)의 연구와 더불어 여러 선행연구(금혜령, 2013; 김영주, 2015; 박여경, 2018; 이진옥, 2011; 정이화, 2016)를 통하여 세운 가설을 검증함으로써, 편견이 높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다문화에 긍정적인 접촉을 하게 한다면 이들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본 연구에서 재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인지적 유연성의 대안이 편견을 통해 다문화적태도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다문화접촉경험이 편견과 다문화적태도 간의 관

계를 조절하는 조절된 매개모형이 확인되었다. 이는 단순히 다문화접촉경험이 편견과 다문화적태도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인지적 유연성의 대안이 편견을 통해 다문화적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인지적 유연성이 낮은 청소년들은 타인이나 타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화되고, 부정적 감정을 더 많이 형성하며, 차별을 상대적으로 더 심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편견은 다문화적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다문화접촉경험이 편견과 다문화접촉경험 간의 관계를 조절함으로써 인지적 유연성이 낮아서 다문화에 대한 큰 편견을 형성하였다 하더라도 다문화적태도를 성숙하게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숙한 다문화적태도를 함양하는데 기여하는 개인적, 환경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검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본 연구의 변인들 중 일부의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들은 존재했으나(김영주, 2015; 정이화, 2016; 현영권, 2018) 이와 같은 요인들을 한 모형 내에서 함께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적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기존 연구에서 고려되었던 여러 요인들을 통합하여 검증하였다. 각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 다문화접촉경험의 하위요인 중 가족, 종교는 다문화적태도와의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으며, 가족, 종교, 외국어는 편견과 상관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편, 다문화접촉경험의 하위변인 중 미디어, 친구, 학교·학원 등의 순서로 편견, 다문화적태도와 상관이 높았다. 이는 청소년기가 또래와의 유대감, 친구관계의 소속감

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기이기 때문이며, 이 시기에 매체를 활용하거나 다문화 학생과 함께하는 긍정적 경험을 통하여 청소년의 편견을 줄이고 다문화적태도를 함양하는데 학교나 학원 등의 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본 연구 결과는 상담 현장에서 또래 상담, 집단 상담 등에 있어서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유연성이 편견을 매개로 다문화적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연구결과 중 특히 의미 있는 것으로 인지적 유연성의 대안은 편견을 매개로 다문화적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통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다문화적태도를 예측하는 개인적 요인인 인지적 유연성의 효과를 더 세부적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인지적 유연성의 긍정적인 요인은 성숙한 다문화적태도를 보인다는 김영주(2015)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대안은 인지적 사고 과정에서 개인의 도식을 경험에 맞게 수정할 줄 아는 능력으로서, 이와 같은 인지적 유연성의 긍정적인 요인이 편견을 감소시키며 다문화적태도를 함양하게 된다는 사실은 상담 현장에서 문제해결력 증진이나 자존감 고양을 위주로 상담하는 것보다 청소년들이 보다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확장시켜주는 것이 편견을 줄이고 긍정적 다문화적태도 함양에 훨씬 유용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근래에 반편견교육을 많이 시행하는 교육현장에서 사고의 확장이 중요함을 알려주는 가치 있는 발견일 것이다.

셋째, 편견이 다문화적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다문화접촉경험의 조절을 밝힘으로써 다문화적태도에 대한 다문화접촉경험의 구체적인 접근을 제공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문화접촉경험은 그동안 많은 연구에서 독립변인으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다문화적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도 임상적으로 구체적인 접근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이는 편견이 심하더라도 다문화에 대한 직·간접적인 접촉경험을 늘려줌으로써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감소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에게 학교에서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이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문화적으로 더 수용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 이는 사회 속의 인간으로서 긍정적인 정체감을 형성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상담현장에도 유용할 수 있는데, 현장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을 만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학생의 적응을 돕기 위한 상담을 많이 지원한다고 해도 결국 그 학생이 속한 사회인 학교 친구들이 개방적이지 않다면, 상담 자체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 학생들의 편견을 줄이고 다문화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 현장에 배포하고 권장하도록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넷째, 다문화적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구체적인 역할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인지적 유연성이 편견을 매개로 다문화적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그 경로 가운데 편견과 다문화적태도와의 관계를 다문화접촉경험이 조절 한다는 것을 밝혔다. 즉, 또래집단에 소속되어 타집단에 대한 배타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는 인지적 유연성이 낮은 중학생들이 편견을 형성하여 낮은 수준의 다문화적태

도를 보일 수 있는데, 이때 다문화에 대한 직접 혹은 간접적인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중학생들의 다문화에 대한 태도를 보다 긍정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적 태도를 함양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환경적, 인지적 개입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시도였다. 이는 본 연구의 의의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된 연구이기 때문에 모든 청소년기의 학생을 대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발달시기상 성장의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초기 청소년인 초등학교 고학년과 후기 청소년인 고등학교 2, 3학년은 인지, 정서, 행동적인 부분에서 큰 차이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검증한 모형을 초등학교 고학년과 고등학생에게서 반복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학생은 1학년의 경우에는 초기 청소년에 해당하며 3학년의 경우에는 후기 청소년으로 진입하는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청소년기 학생들의 다문화적태도를 함양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고유한 함의를 지니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통하여 진행한 연구이기 때문에 각 변인들을 측정하는데 연구참여자가 자신들의 정보를 왜곡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추후의 연구에서는 실험이나 관찰, 면접을 활용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 중 편견과 다문화접촉경험 척도는 제대로 타당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사용하였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편견은 고정관념, 편견, 사회적 거리감 척도 각각을 하위요인으로 사용하여 전체적인 편견을 상정하였다. 다문화접촉경험의 경우에는 다문화접촉경험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개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것에 따라 일관성이 다소 낮게 측정된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접촉의 효과가 태도에 긍정적인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는 선행연구(Paolini, Harwood, & Rubin, 2010; Plant & Devine, 2003)에 따라 일관적이지 않은 모습이 몇 개의 하위변인에서 발견되었음에도 이를 확인하고자 모두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다문화접촉경험이 편견과 태도 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조절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는데 사용한 변인들을 모두 횡단적으로 측정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변인들의 전후 및 인과관계를 선행연구를 비롯한 이론을 바탕으로 확립하였다. 이를 통하여 연구 설계를 하였고, 횡단연구의 한계를 줄이고자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연구설계는 변인들 간의 전후 및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나 집단 간 비교연구를 통해 본 연구결과를 더욱 명확하게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금혜령 (2013).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다문화적 경험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근, 이기혜 (2016). 한국 청소년의 다문화

- 적 태도 영향요인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한국교육학연구, 22(4), 311-335.
- 김수영 (2016).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다문화 경험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사회연구, 9(2), 201-229.
- 김수진, 이정숙, 김보영, 최봉실, 권영란 (2010). 다문화이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사회적 거리감과 다문화 및 인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자료분석학회, 12(1), 211-225.
- 김영주 (2015). 문화적 다양성 경험이 외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유연성의 매개효과.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태 (2011). 초등학교의 편견과 다문화적태도가 다문화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12(12), 5639-5647.
- 김완일 (2008). 자기복잡성과 인지적 유연성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3), 715-734.
- 김혜숙 (2001). 집단범주에 대한 신념과 호감도가 편견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1), 1-16.
- 김혜숙, 김도영, 신희천, 이주연 (2011). 다문화시대 한국인의 심리적 적응.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2), 51-89.
- 노경란, 방희정 (2009). 다문화시대 한국 초등학교 학생의 인종에 대한 명시적 및 암묵적 태도 발달과 태도변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1), 49-79.
- 라종민, 정혜진 (2013). 학교 내 다문화교육 경험과 일반 중학생의 다문화 인식 차이에 관한 연구. 교육종합연구, 11(3), 165-184.
- 민무숙, 안상수, 김이선, 김금미, 조영기, 류정아 (2010). 한국형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 개발연구. 사회통합위원회.
- 박여경 (2018). 청소년의 제노포비아에 미치는 영향에서 편견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혜선 (2015). 일반청소년들의 다문화수용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 사회적 거리감 및 다문화효능감을 중심으로. 성결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선공유화 (2016). 청소년의 다문화 행동의도와 다문화 인식, 다문화 자기 효능감, 다문화 태도의 구조적 관계.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세계일보 (2018). 국가인권위 “우리나라에 심각한 인종차별이 존재한다.” 독립보고서 발표. 서울. 세계일보. <http://m.segye.com/view/20181108002864> 에서 검색.
- 안상수, 민무숙, 김이선, 이명진, 김금미 (2012).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양계민 (2009). 국내 소수집단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2), 59-79.
- 어홍선, 이종숙 (2018). 일반가정 청소년들의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거리감 및 다문화효능감의 관계.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29, 181-199.
- 유선미 (2016). 초등학교의 다문화경험과 자아 존중감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성경, 유정이 (2000). 집단주의-개인주의 성향과 상담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1), 19-32.

- 유힘찬 (2015). 초등학생의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 모형 개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봉민 (2012). 상상 접촉이 다문화 외집단 대상에 대한 집단 괴롭힘 태도에 미치는 효과. *시민교육연구*, 44(1), 109-134.
- 이재규, 황순택, 신소영 (2014). CU특질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 인지적유연성을 중재변인으로. *사회과학연구*, 53(2), 217-259.
- 이지영 (2013). 중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진옥 (2011). 다문화가정청소년에 대한 일반청소년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고정관념. *편견. 사회적 거리감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택호, 이석영, 한운선 (2016). 교우관계와 교사관계가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2(1), 65-85.
- 이하령 (2007). 인종에 대한 사회적 편견 연구: 고정관념, 감정과 사회적 거리감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예, 조현주 (2016). 대학생의 탄력성이 지각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긍정정서와 인지적 유연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1), 147-168.
- 이혜진 (2009). 초등학생의 다문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정하, 조은영, 오연경, 윤원영 (2016). 대학생의 감사성향과 인지적 유연성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7(2), 93-120.
- 장한업 (2014). *이제는 상호문화교육이다: 다문화 사회의 교육적 대안*. 파주. 교육과학사.
- 정선호, 서동기 (2016). 회귀분석을 이용한 매개된 조절효과와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방법.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1), 257-282.
- 정이화 (2016). 접촉이 청소년의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2019).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통계자료*. <http://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69/subview.do> 에서 검색.
- 하경애 (2010). 초등학생의 다문화 인식과 영향 요인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덕웅 (2002). *집단행동이론*. 서울. 시그마프레스.
- 허심양 (2011). 완벽주의와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에서 인지적 유연성의 역할.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현영권 (2018). 대학생의 미디어를 통한 다문화 간접 접촉경험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관심의 조절효과. *독서치료연구*, 10(1), 45-65.
- Aiken, L. S., West, S. G., Reno, R. R.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Park, CA: Sage.
- Allport, G. W.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Garden City, NY: Doubleday Anchor Books.
- Banks, J. A. (1991). Teaching multicultural literacy to teachers. *Teaching Education*, 4(1), 133-142.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ennett, C. I. (2007). *Multicultur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Boston, MA: Pearson Allyn and Bacon.
- Berscheid, E., & Reis, H. T. (1998). Attraction and close relationships. In D. T. Gilbert, S. T. Fiske, & G. Lindzey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pp. 193-281). New York, NY: McGraw-Hill.
- Breugelmans, S. M., & Van De Vijver, F. J. (2004). Antecedents and components of majority attitudes toward multiculturalism in the Netherlands. *Applied Psychology*, 53(3), 400-422.
- Byrne, D. (1997). An overview (and underview) of research and theory within the attraction paradigm.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4(3), 417-431.
- Corrigan, J. D., & Schmidt, L. D. (198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revisions in the Counselor Rating Form.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0(1), 64-75.
- Dennis, J. P., & Vander Wal, J. S. (2010). The cognitive flexibility inventory: Instrument development and estimates of reliability and validit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4(3), 241-253.
- Eller, A., & Abrams, D. (2003). 'Gringos' in Mexico: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Effects of Language School-Promoted Contact on Intergroup Bias. *Group Processes and Intergroup Relations*, 6(1), 55-75.
- Ellison, N. B., Steinfeld, C., & Lampe, C. (2011). Connection strategies: Social capital implications of Facebook-enabled communication practices. *New Media and Society*, 13(6), 873-892.
- Goldsmith, E. B. (2013). *Resource management for individuals and families, 5th edition*. London, UK: Pearson.
- Gough, H. G. (1987). *California psychological inventory administrator's guide*.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He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Guilford Press.
- Hollinger, D. (1995). *Postethnic identity: Beyond multiculturalism*. NY: Basic Books.
- James, L. R., & Brett, J. M. (1984). Mediators, moderators, and tests for media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9(2), 307-321.
- Katz, I., & Hass, R. G. (1988). Racial ambivalence and American value conflict: Correlational and priming studies of dual cognitive struct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6), 893-905.
- Kymlicka, W. (1995). *Multicultural citizenship: A liberal theory of minority rights*. Clarendon Press.
- Masso, A. (2009). A readiness to accept immigrants in Europe? Individual and country-level characteristics.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5(2), 251-270.
- Matejskova, T., & Leitner, H. (2011). Urban encounters with difference: the contact hypothesis and immigrant integration projects in eastern Berlin. *Social and Cultural Geography*, 12(7), 717-741.
- McLaren, L. M. (2003). Anti-immigrant prejudice

- in Europe: Contact, threat perception, and preferences for the exclusion of migrants. *Social Forces*, 81(3), 909-936.
- Munroe, A., & Pearson, C. (2006). The Munroe multicultural attitude scale questionnaire: A new instrument for multicultural studie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6(5), 819-834.
- Myers, D. G., & Jeeves, M. A. (1987). *Psychology through the eyes of faith*. New York, NY: Harper & Row Publishers.
- Paolini, S., Harwood, J., & Rubin, M. (2010). Negative intergroup contact makes group memberships salient: Explaining why intergroup conflict endur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6(12), 1723-1738.
- Pettigrew, T. F., & Tropp, L. R. (2008). How does intergroup contact reduce prejudice? Meta analytic tests of three mediator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8(6), 922-934.
- Plant, E. A., & Devine, P. G. (2003). The antecedents and implications of interracial anxie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6), 790-801.
- Sensoy, Ö., & DiAngelo, R. (2012). *Is everyone really equal?: An introduction to key concepts in social justice education*.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Tadmor, C. T., Galinsky, A. D., & Maddux, W. W. (2012). Getting the most out of living abroad: Biculturalism and integrative complexity as key drivers of creative and professional suc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3(3), 520-542.
- Tropp, L. R. (2007).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interracial contact: Predicting interracial closeness among Black and White American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70(1), 70-81.
- Tropp, L. R., & Pettigrew, T. F. (2005). Relationships between intergroup contact and prejudice among minority and majority status groups. *Psychological Science*, 16(12), 951-957.
- Turner, J. C., Hogg, M. A., Oakes, P. J., Reicher, S. D., & Wetherell, M. S. (1987). *Rediscovering the social group: A self-categorization theory*. Cambridge, MA, US: Basil Blackwell.
- Vassallo, B. (2012). Am I culturally competent? A study on multicultural teaching competencies among school teachers in Malta. *The Journal of Multiculturalism in Education*, 8(1), 1-43.
- Verberk, G., Scheepers, P., & Felling, A. (2002). Attitudes and behavioural intentions towards ethnic minorities: An empirical test of several theoretical explanations for the Dutch case.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28(2), 197-219.
- Wagner, U., Christ, O., Pettigrew, T. F., Stellmacher, J., & Wolf, C. (2006). Prejudice and minority proportion: Contact instead of threat effect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9(4), 380-390.
- Ward, C., & Masgoret, A. M. (2008). Attitudes toward immigrants,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ism in New Zealand: A social psychological analysis 1.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42(1), 227-248.

- Ward, J. Martin (1996). *The relationship of preservice teacher's cross-cultural experiences with their belief about teaching divers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ansas State University.
- Westie, F. R. (1953). A technique for the measurement of race attitud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8(1), 73-78.
- Wilder, D. A. (1986). Social categorization: Implications for creation and reduction of intergroup bias. In L. Berkowitz (Ed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19, pp. 293-355). New York: Academic Press.
- Wright, S. C., & Lubensky, M. (2009). The struggle for social equality: Collective action vs. prejudice reduction. In S. Demoulin, J. P. Leyens & J. F. Dovidio (Eds.), *Intergroup misunderstandings: Impact of divergent social realities*. New York: Psychology Press.

원 고 접 수 일 : 2019. 09. 04

수정원고접수일 : 2019. 11. 11

게재결정일 : 2020. 01. 03

The Relations among Multicultural Contact Experience, Cognitive Flexibility, Prejudice, and Multicultural Attitudes in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Ki-Hyun Choi

Hanyang University / Graduate Student

Jung Hee Ha

Hanyang University / Professo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multicultural contact experience through prejudi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gnitive flexibility and multicultural attitude. Data were obtained from 455 students from three middle schools in the A region. The results of the statistical analyses are as follows. First, the variables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one another, with the exception of control, which is a subparameter of cognitive flexibility. Next, there was a mediating effect of prejudi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lternative, which is a subparameter of cognitive flexibility, and multicultural attitude. Additionally, there was a moderating effect of multicultural contact exper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ejudice and multicultural attitude. Finally, multicultural contact experience moderated the mediating effect of cognitive flexibility on multicultural attitude through prejudice. The significance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as well as its limitations, are presented.

Key words : multicultural contact experiences, cognitive flexibility, prejudice, multicultural attitude,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moderated mediation